

건축공간과 공예의 상호연관 연구 - 작품제작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Craft and Architectural Space)

유리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교수

조형연구소 교수 연구

서 론

오랜 역사를 통하여 공예는 건축공간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발전되어 왔다. 인간의 삶의 중요한 바탕인 건축공간에서 인간은 생활하며 도구를 쓰게 되고, 건축이 만들어낸 순수공간에는 인간에 의해 제작된 물체들, 즉 넓은 의미의 공예품들로 메워지게 된다. 또한 건축은 그것 스스로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보호해줄 뿐 아니라, 공간의 구획으로서 생활의 보조 역할을 하는 그 자체이다. 건축은 인간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재창조된 공간이며, 자동화된 현대의 건축공법도 결국 인간이 자연의 물질을 변용시키는 작업의 결과이다.

현대에 이르러 분업화가 극단화된 산업사회에서는 건축공간 마저도 철저한 기능성이 강조되어 도시 건축에서의 그 냉정함은 인간의 감정을 소외시키기도 한다. 한편 공예미술은 근대에 이르러 순수 예술작품의 성격으로 전시장에서 혹은 독립된 예술품으로 관객과 마주하면서 인간의 직접적인 생활과 거리를 두게 된다. 이러한 순수 예술품으로서의 공예와, 도구적 기능을 지니고 있거나 수공이라는 넓은 의미의 공예는 그것 자체가 인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술의 본질적 의미가 재검토 되고 그 범위가 확산되는 현대에서 공예는 사실 인간이 접촉하는 모든 사물과의 관계일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효용의 측면에서 해석된다. 현대라는 시대의 특성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리된 공간활동 즉 건축활동, 예술활동은 삶의 터전에서, 혹은 도시환경에서 어떤 부족한 부분을 만들고 환경미술이라는 또 하나의 특수분야를 생산해 내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공예라는 개념으로 역사에서 당연시 되던 분야를 되살려 생각해 볼 시점인 것이다.

공예는 입체공간의 활용이다. 이러한 입체공간은 끊임없이 우리의 환경 속에서 변화 생성되고 있다. 그러므로 건축공간과 공예공간은 우리가 의식하기 이전에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첫째, 건축이 우리를 둘러싼 물체라는 점. 둘째, 건축은 손에 의해 축조되는 점에서, 사물로서의 공예공간 이전에 환경 공간으로서의 공예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공예라는 개념이 현대 이전에는 광범위하게 쓰여 졌으며 오늘날 순수미술의 영역자체가 과거에는 공예의 개념이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건축을 인간의 삶을 위한 구체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공예가는 건축에 대한 관심을 모아 폭넓은 의미의 공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가 제작한 작품은 구체적 건축물과의 관계속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는 사람의 시선과 건축공간과의 끊임없는 시공간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마침 연구자가 1년간 방문, 연구했던 크랜브룩 미술대학원(Cranbrook

*본 논문은 한국 학술진흥재단 지원연구 보고서임.

Academy of Art)에서의 교육내용은 건축, 인테리어, 조각, 공예등이 유기적인 연관을 갖고 교육되고 있어 이곳에서의 연구는 위와 같은 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크랜브룩 미술대학원의 공예교육의 전통은 공예와 건축의 역사성을 담고 있는 것으로써 브네쌍스키의 예술가 혹은 그 이전의 예술의 개념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다. 연구자는 이점에서 방문연구의 효과와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1. 연구내용 및 방법

한국 공예는 전통공예와 현대공예와의 심한 단절을 충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20세기초 서구문명과의 급속한 접촉에서 심한 문화의 굴절을 겪은 이유 뿐만 아니라 서구공예의 오랜 역사를 탐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에서의 현대 공예교육은 다른 분야 특히 건축분야와의 중요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건축공간과의 실험을 통한 실질적 공간 체험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공예작품들은 건축공간과 함께 존재하게 된다.

i) 이러한 점에서 공예창작과 교육을 단순히 개인소유의 예술창작품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공동소유 혹은 환경공간으로서 연구하는 방법이 부각될 수 있다. 특히 공예교육이 세밀한 분야까지 이루어지는 건축장식공예, 건축장식미술 등을 적극 연구함으로써 공예의 전통적 기능을 새로이 바라볼 수 있다. (따라서 모더니즘 이전의 건축공예를 연구하여 새로이 현대공예에 접목시키는 방법이다.) 현대건축의 특성이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단순성을 그 특징으로 하지만 그러한 단순성 속에도 전통적 장식의 기능은 수없이 존재한다. 이것은 현대건축의 시공 과정의 분업화된 속성을 구분하여 생각함으로써 가능하다.

ii) 건축의 세부공간들은 그것 자체가 인간의 손질이 수없이 갈 수 밖에 없다. 이 점이 전통 수공예를 현대공예와 연결시킬 수 있는 요소이다. 더 나아가 현대인들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새로운 삶의 공간에 대한 갈망은 현대인의 신체와 인공물로 이루어진 건축 사이의 절충공간이라 생각되며, 공예를 미술관 체제나 실용사물이 아닌 인간의 구체적 욕구로서 연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상으로서의 공예작품이 그 환경으로서 건축과 어떻게 관계지어 지는가가 중요하다. 실내의 공간은 그것 자체가 특수한 삶의 공간으로 그곳에 놓여지거나 설치되는 사물들 자체가 건축물과의 관계를 지니며 새로운 공간의 탄생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iii) 가구나 장식물 이외에 공예작품을 제작함에 있어 직접적인 건축의 요소들을 분석하며 접근하는 방법이다. 특히 건축물은 문, 난간, 천장, 벽면 등 이루 해아릴 수 없을 만큼 인간의 눈길이 끊임없이 스치는 사물이며 이것들은 모두 공예의 인간적인 면을 물질로서 탈바꿈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연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건축이 실제 인간과 부딪치는 접촉부분을 인간의 창조적 손길이 닿게 함으로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한 크랜브룩 미술대학원과 그 주변의 건축과 공예가 밀접히 연관된 20세기초의 건축물과 공예작품들을 통하여 제3장 공예의 수공성과 현대건축에서 다루었다.

2. 건축공간과 공예

가. 공예와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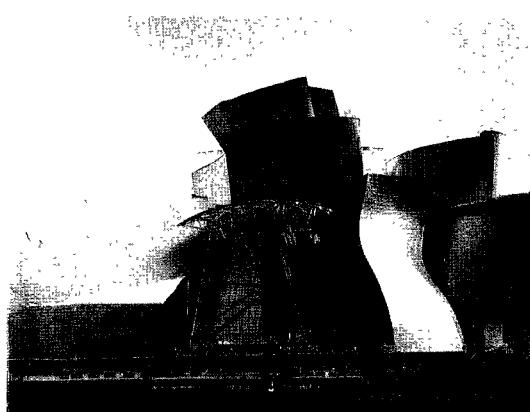
공예는 자연과의 친숙함, 인간의 형태적 경험, 즉 자연 혹은 인간과의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터득한 자연발생적 요소가 공예의 전통, 서로 다른 지역적 배경 속에서 스스로 터득한 인간의 자연에 대한 물질적 감각을 드러내면서 사회 속에서 서로 소통하는 것이다. 그것은 현대에는 기능주의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자본 우위의 논리에 빠지지 않고 개인 혹은 집단의 취미가 건축공간 속에서 제 역할을 골고루 하는 것이다. 공예는 인간의 지능을 통한 사물의 변용이라는 개념 중에서도 건축과는 특별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더운 공기 속에서 흙과 식물 사이에서 터득한 자연물에의 친밀감이 원시예술품 속에서 현대로 이어지는 자연 친화적 요소로서 현대의 도시건축에서 더욱 활발하게 숨쉴 수 있다. 건축에서의 장식적 요소를 전혀 배제하려는 모더니즘 건축에서도, 예를 들어 미국 현대건축의 대표자 겸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가 스스로 공예장식을 디자인한 점은 건축공간과 공예와의 관계를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 나아가 최근 스페인 빌바오에 세워진 프랭크 게리(Frank Gary)의 구겐하임 미술관의 형태가 전형적인 공예작품과 유사한 점도 주의해 보아야 한다. 모더니즘 이후 건축의 형태가 공예작품화 되어가는 현상이 두드러진다(프랭크 게리 건축, 그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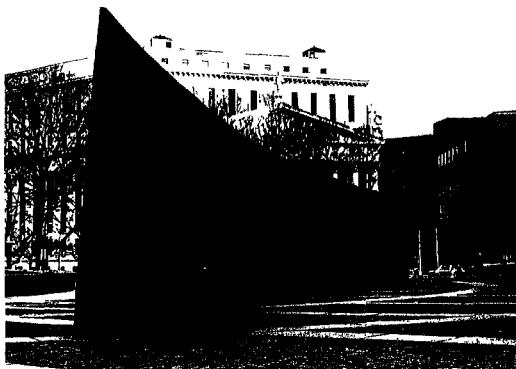
건축공간과 공예와의 관계는 공예의 요소 중에서 인간의 손을 통한 직접적 접근을 통하여 건물의 질료적 요소 전체에 그 감각을 가미하는 것과, 건축공간의 주위에 공예작품이 놓여짐으로써 새로운 가변적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예를 들어 건축 내, 외부의 재질을 결정하던가 가구, 난간 등을 결정짓는 판단 속에는 언제나 공예적 속성 즉 자연에서 터득한 물질과 인간과의 접촉을 통해 오랜시간 다듬어진 물질의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 후자의 경우, 우리는 건축공간과 접촉하는 순간 공예품이 만들어 내는 공간이 건축 속에서 돌출되거나, 병존함으로써 건축공간의 환경적 요소 속에서 공예 감각이 번져나옴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감각은 공예품이 건축공간과 만남으로써 특수한 공간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된다. 특히 환경조형물들은 새로운 건축공간과 연계하여 볼 때 모두가 기념비적인 조형물들이기 보다는 도시생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인간의 정신적 안정을 돋는 생태환경적 조형물로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과 호흡할 수 있는 다양한 이미지를 지니는 형상, 스스로 인간의 지각에 적응, 변화하는 감성적 요소가 요구된다.

새로운 시대의 건축공간은 이미 주변의 교통여건의 변화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보통신적 소통과 도 유기적으로 적응되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건물들에 설치되는 공예적 요소의 조형물들은(예술장식품 혹은 입체조형물들) 위의 관점에서 건



〈그림〉 프랭크 게리,
Guggenheim Museum Bilbao, 1997



〈그림〉 Richard Serra,
Tilted Arc, 1981, Cor-Ten steel
12×120×21/2
installed Federal Plaza, N.Y.

축 자체의 디자인적 요소와의 관계는 물론, 한편으로는 건축공간 주위에서 활동하고 휴식하는 인간 본연의 생태적 요소가 크게 고려되어야 한다. 현대건축에서의 예술장식품들은 대부분 절대적 대상으로서의 기념비적 형태가 주조를 이루었다. 현대예술에서 미니멀 조각작품들은 그러한 경계를 넘어서는 분수령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장 한가운데 놓여 있는 리차드 세라(Richard Serra)의 단순한 철판 벽면은, 보는 이로 하여금 흥미로운 관찰과 함께 그 주위를 서성거리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

환경조각의 설치에 의해 새로운 공간이 형성되는 것이다. 대형 환경조형물으로서의 미니멀 조각이 파생시키는 새로운 공간은 현대인에게 미묘한 여유와 일상적 사고의 파괴를 불러 일으킨다. 이러한 비합리적 파괴의 속성이 인간에게 주는 놀이의 속성은 전통공예에서의 놀이의 속성과는 다른 것인가? 갑자기 가로 막혀진 대형철판은 주변의 익숙해진 통로공간 및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합리적 자본공간을 파괴하면서 광장의 공간을 가로질러 우리의 시야조차 차단시켜 버린다. 어처구니 없는 설치물은 따지고 보면 많은 사람들의 협작품이다. 작가의 최초 아이디어는 물론이고, 실행과정에서 철판을 구하는 일, 절단하는 일, 가공, 운반하는 일 등의 직접적인 작업과정이 선행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을 광장에 설치하려는 의사결정이 의미하는 것은 건축물의 장식으로서의 전통적 공예의 기능과 다른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순수예술품이 전통적 수공예와 구분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때, 순수예술품으로서의 미니멀 조각이 완전히 장식심리와 분리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프랑스 파리 풍피두 센터 광장의 모빌 분수 조각은 어린이들에게 환호를 불러일으키며 어른들에게 조차 무한한 유년시절의 느낌을 불러 일으킨다. 또한 풍피두 센터의 외관은 건축물의 현대적 설비가 밖으로 드러나는 현대건축의 기술적 요소와 대비되는 자연의 요소로 인해서 동물의 생태적 요소와 대비적 효과를 이루고 있다. 한편 현대미술에서의 엄격한 장르 구분이었음에도 조각이 공예의 부분을 포함하고 공예가 조각의 부분을 공유함은 사실이다. 손으로 매만지어 다듬거나 모형제작을 통하여 제작되는 입체조형물들은 공예적 전통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리차드 세라의 경우 우리는 그 분류가 환경조각, 미니멀리즘 등으로 공예와는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순수공예 작품들은 조각과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결국 건축공간과의 연계 속에서 공예를 파악할 때 그것은 건축자체에 쓰여진 재료의 형태변형과, 장식심리에 의한 입체물들로 지칭되고 있다. 순수미술의 개념이 애매해진 시점에서, 공예는 더욱 폭넓은 역사적 지평을, 특히 건축과 연계되어 열어 나갈 필요가 있다.

나. 모더니즘과 건축

오늘날 모더니즘은 새로운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다양한 해석과 시대구분이 가능한 모더니즘은 어느 역사에서나 내세우는 특징없는 개념이기도 하다. 새로움은 세월이 지나면 낡은 내용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로움은 단지 이전의 상태와 비교함으로써만 새로움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건축 또한 위와 같은 운명을 지니고 있음을 당연하다. 스스로 움직이는 인간이 대지 위에서 활동하는 우주적 공간은 원시시대 아래 자연적으로 인간의 활동을 통하여 변화하는 공간으로 탈바꿈 된다. 인간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공간의 변화인 셈이다. 그 중에서도 물리적 조건으로서의 건축은 자연과의 부분 집합이다. 특히 고대인들이 만들어 낸 거대한 입체물이나 그리스인들의 신전은 공간 자체를 대상화하기 보다는 자연에의 보이지 않는 의탁현상과 같은 것이다. 판테온

(Pantheon) 신전 아래 인간에 의해 창조된 내부공간은 독특한 카타콤(Catacomb) 공간을 거쳐, 넓은 의미에서의 현대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원근법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현대 건축이 가지고 있는 자연의 본질적 요소, 수학적 원리에 의한 기능적 요소 즉, 노동하는 인간이 노동 자체에만 몰두할 수 있는 기능 건축들, 예를 들어 수많은 도시의 사무실 공간들, 산업체 품을 생산해 내는 생산공장들, 또는 삶의 중심 공간인 거주공간에서도 모든 자연과 연관된 요소들, 자본축적과 관계없는 취미적 요소들이 제거되었다. 기능적이지 못한 것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자연의 무질서한 침해에서 벗어난 도시생활은 전기, 수도, 음식물이 정제되어 공급되는 인공적 공간에 가깝다. 그러나 직접적 자연과 단절된 인공적 건축공간은 스스로의 호흡을 함께 지운다. 도시환경문제, 수질오염등으로 인한 기본적 삶에 대한 위협이 도시를 고립시킬 정후가 보인다. 그러나 자연은 단절될 수 없는 존재이다. 모더니즘 미술 조차도 시작적 자연의 유물로 인해 그 송고함과 연결되는 데 몬드리안이나 바넷 뉴만의 회화, 안소니 카로의 조각조차도 그 단순성 속에는 끝없는 자연 속을 멀리서 바라보는 원시적 시공간의 잔상이 남아 있다(J. Fineberg, Since 1940 Art). 자연에서의 송고함은 단지 시각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한한 자연에 대한 종교적 믿음과 연결된다.

현대의 새로운 도시공간은 인간의 삶이 전시되는 전시장으로, 도시의 거리들은 단지 바쁘게 지나가는 통로, 자본을 이동시키는 스쳐지나가는 공간으로 변화된다. 상호 소통으로서의 공간이 자본적 목적이외에는 서로 분리되어 대중과 개인, 심지어는 개인들끼리의 관계마저도 소원하게 한다. 거리는 텅 빙 무대가 된 것이다. 정부는 오히려 대화의 거리를 강제로 지정시켜 놓기까지 한다. 그런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과거의 건축공간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 정보, 인지공간을 종합지어야 한다. 정보화 시대의 건축공간은 화상정보 시스템, 인터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서로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도 소통이 무한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 점은 자신의 삶의 과정이 이미지 정보로서 타인에게 개인적 취향의 교감이나, 상업적 목적에 의하여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전달되는 이미지의 장식성을 중시하는 공간으로 바꿀 가능성을 의미한다. 모든 소통이 숨겨진 가운데 이루어지거나 새로운 공간의 소통을 개방된 공간과 연결지어야 할 것이다. 현대건축에서는 전통적 공예의 역할은 빠져 버린 듯하다. 자칫 그와 같은 성급한 판단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공예의 개념을 역사에 근거하여 찬찬히 분석하여 보면 그것이 피상적 판단임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공예는 더욱 친밀하게 새로운 건축속에 숨어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대 건축은 얼마나 똑바른 기하질서 공간을 위해 노력하는가 그리고 그 반듯한 건물의 형태들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를 생각해 봄으로써 알 수 있다.

다. 공예공간의 해석

주택공간에서의 공예장식은 일상적 생활에서의 시각적 즐거움과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시키며 자신의 개인적 취향을 보장한다. 이러한 공예장식의 활동은 그것으로써 일상적 삶을 통한 공예공간을 형성한다. 공예미의 요소들은 벽지의 선택이나, 조명등, 가구의 배치 뿐만 아니라 주방, 옷장의 관리를 통해 자신의 본능적인 시각적 습성이 자신이 속해 있는 주택공간 환경으로서의 건축공간과 상호 의지하는 관계를 갖게 된다. 주택과 건축공간은 자신의 미적 선택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이러한 건축공간 속에 숨겨진 숙련적 공예미는 인간의 타고난 인성을 잘 드러내 줌으로써 자연속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스스로 타고 났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기능적 요소가 중시되는 현대생활에서 조차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순간에서 이러한 취미적 공예활동을 반복하고 있다. 도구들을 만드는 일에서부터 글쓰는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많은 일들을 주의하면서, 반복해서 망치지 않게 하기 위

해 기술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물질을 변용시키는 공예작업에 우리자신을 잊고 몰두할 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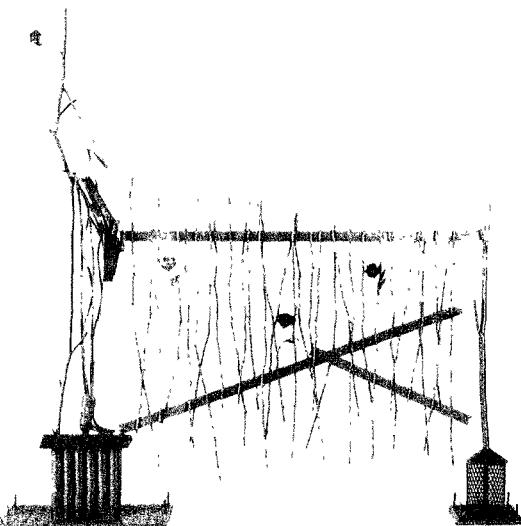
많은 공예활동들은 논리적 활동-미술관을 중심으로한 비평과 수집을 통하기 보다는 일상적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새로운 공예활동의 해석은 이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그것은 두 가지 측면, 첫째 기계생산 제품에도 오랜동안의 기능적 도구의 요소가 스며들어 있으며, 공예 혹은 미술품과는 다른 은밀한 장식적 질서들이 있다는 점과, 둘째 전문공예가의 작품들은 대량생산품에서 보이는 소비자와의 획일적이고 무관한 관계보다는, 신뢰와 미적판단의 공동 연대감에 의존하는 점을 분석해야 한다(Peter Doner - The ideal world of Vermeer, Little lace maker). 모더니즘 시기의 장식이 노동의 낭비로서 기능을 위하여 희생시켜야 한다는 이념은 재고되어야 하며, 기능이 없는 공예 작품이 여전히 상징적인 사물로서 매매되고 수집되고 있는 인간의 공예활동은 새롭게 조명되어야 하고, 후기 산업사회의 도시공간에서 환경조형물들을 요구하는 도시사회의 집단적 사회의식의 연구가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도시에 유럽 고전풍의 브론즈 느낌을 모방한 조야한 가로등이 수없이 늘어나고, 새로 짓는 빌라풍의 소규모 연립주택이나 조립식 판넬주택의 출입문에 금속제품의 십장생 문양이 선택되며, 서울의 고층 빌딩군 사이에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유행에만 민감한 환경조형물이 세워지고 있음은, 한국에서의 모더니즘 예술이 어떻게 대중들 속을 관통해 왔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자연과의 교섭이 환경예술에서도 이루어져야하며 윌리엄 모리스의 문양 (Honey Suckle) 처럼 그 수많은 형태변형이 가능한 원리의 모델로서 자연에서 관찰되는 현상속에서 변형이 가능한 요소들이 인간의 삶의 공간과 어울리며, 변화해 갈 수 있는 새로운 지점을 공예공간은 탐색해야 한다.

3. 공예의 수공성과 현대건축

건축공간이란 우선 건축물이 세워짐으로써 만들어지는 새로운 내, 외부 공간을 의미한다. 공간이란 사물과 함께 존재하는 것이며 그 인식에 따라 인간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는 존재이다. 구체적 실체로서의 건축공간은 근본적으로 건축이라는 물체와의 관계일 수 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체취가 묻어날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의 공예라는 개념은 그 건축의 언저리에서 끊임없이 파생되는 공간체험이다.

연구자가 방문한 크랜브록 대학원은 그러한 점에서 학교의 건축물 자체가 오랜 전통과 함께 그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적 문화관광 요소로서 학교건물, 교수의 사택, 설립자의 저택, 정원, 철대문들과 분수대, 조각등 모두가 조형적 요소, 공예공간적 요소를 다분히 지니고 있었다. 이 점에서 결과적으로 최초의 연구목적과 어느정도 부합되는 연구분위기를 선택한 셈이다. 특히 게리 그리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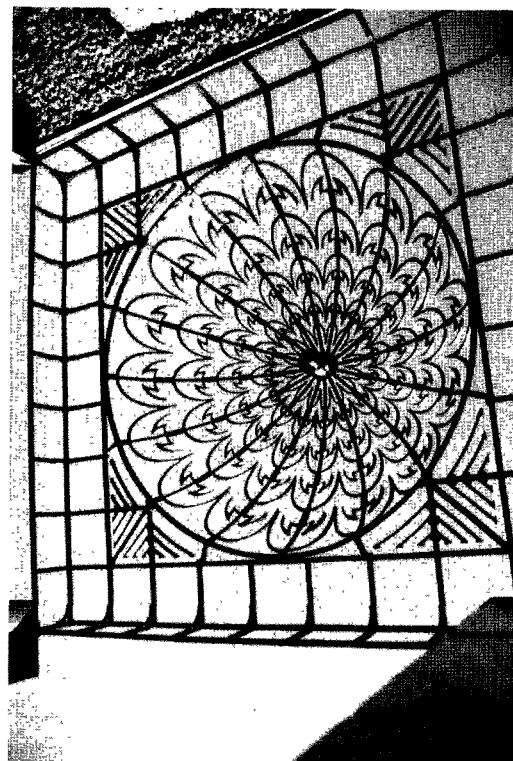


〈그림〉 Gary Griffin, Fence, 1984
187.9×192.5×30cm

수는 그러한 내용을 지닌 산 증인과 같은 존재로서 새로운 산업기계를 통한 작품제작 과정은 또 하나의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한다고 생각된다.

크랜브룩 미술대학원은 1890년대에 설립되면서 공예공방이 운영되었던 곳으로, 그 지역의 대부분의 건축장식과 생활용품이 그곳에서 제작되었던 만큼 유럽공예의 정통성이 이어진 곳이다. 미국의 공예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많은 50-60대 교수들이 이곳 출신인 만큼 한때 전통적 공예교육의 중심지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 공예과 교수로 있는 게리 그리핀(Gary Griffin)이 이러한 전통에 산업성을 도입하게 되었다(그는 기계의 작동에 대한 보고서를 쓴 바 있으며 작품제작에 산업성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즉 가장 전통적인 것을 산업적인 방법을 통하여 만든 것이다. 따라서 공예과의 서비스는 이전의 전통적 공예공방 수준의 서비스와 현대산업에서 쓰이는 많은 산업용 기계들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 선반, 밀링, 스피닝, 잉글리쉬 월, 각종 절단기와 용접기, 우수한 단조설비, 유압 프레스 등 이러한 환경은 학생들에게 작업의 새로운 방법을 유도하는 의미를 갖게 되기도 한다.

이 대학원에는 건축, 디자인, 공예, 회화, 조각, 사진 등 9개의 과들이 있으며, 교육 또한 9개의 과들이 연계성을 가지며 이루어지고 있다. 본인의 연구가 수행되었던 금속공예과의 교수와 학생들 역시 다른 전공들과 끊임없이 교류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작업경향에서 공예를 인간의 삶에 직접 적용시킬 수 있는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공예작품들은 건축의 내부, 외부공간을 직접 이루고 있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특정 건축 양식에 맞는 문의 손잡이나 샨델리아 또는 금속가구, 커튼걸이, 벽조명등, 촛대, 벽난로, 창틀과 각종 문들의 제작의 수공적 효율성, 전통적 미의 기능, 조형적 실험 특히 기능의 조작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형태의 개발이 이루



〈그림〉 크랜브룩 대학원 건물과 건물 장식지붕

어지고 있었다. 이 작품들은 양식이 존중되고 현대성이 가미 되면서 제작기법을 발달시키고 있었다.

크랜브룩 공예교육의 예에서와 같이 현대 공예작품이 갖는 수공적 가치는 산업사회에서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고 될 수 있다. 현대 산업기계 제품은 새로운 자동화 시설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적 예로 자동차 제조공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원래 수공에 의존하던 제조공정이 첨단 자동화 기계의 도입으로 대량생산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탕에는 모델링이나 자동화 기계의 제작에 수많은 수공의 노력이 그 기반을 이루고 있음을 놓쳐서는 안된다. 이러한 제작과정에의 판단은 연구자의 작품제작을 하는 방법에서 적극 활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대공예는 미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순수미적 혹은 취미예술로서의 기능과 한편으로는 손으로 만들어진 수공예의 의미로 또 한편으로는 기능도구 제작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예를 인간의 순수 공간활동 혹은 삶과 연관된 사물 제작활동으로 그 개념을 확대할 경우 우리는 공예의 원래 개념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새로운 공간을 창조해 낼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 연구를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또 다시 기능주의적 전문화된 사회에서 전문영역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종합화된 문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그것은 새로운 지식문화의 소통과 통신의 발달로 가속화되고 있다.

위와 같은 가정은 현대건축 특히 새로운 건축의 방향이 적어도 그 형태면에서 기하 직선적 형태를 탈피하고 곡선적 요소 혹은 다변형 형태를 취하면서 보다 인간에게 친숙한 형태로 변하려는 몸부림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인은 여러곳에서 읽을 수 있겠으나 우선 도시 전체가 인공화되고 있으며 공학기술의 발달로 건축물이 거대화되는 과정에서 자연속에서 살아온 인간으로서 그 조화, 적어도 시각적 편안함을 잃지 않으려는 본능의 발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적 친화의 형태는 공예의 중요한 요소로서 바로 그 요소 때문에 건축과 공예와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친숙한 관계이면서도, 기계미학을 바탕으로 한 기능주의가 현대의 건축미학을 대표하기 시작한 이후 그 관계는 멀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현대공예의 한 흐름은 순수형태주의로 흐르면서 개인의 순수취미로서의 작품을 발전시키며, 다른 예술형식과 마찬가지로 미술시장에서의 기능을 발전시킨다. 갤러리, 미술관 문화가 대학교육을 중심으로 고급화된 작가기능을 가져온 것이다. 마찬가지로 건축활동은 과거의 장식적 기능에는 별로 관심이 없이 건축 디자인 이라는 명칭하에 그러한 기능을 흡수해 버린다. 이 점은 공예의 현실성 즉 저변문화 속에서의 공예활동을 생각해 볼 때 매우 중요한 점이다. 순수미술과 달리 공예품, 공예작품들은 그 기능성 때문에 매우 폭넓게 우리의 삶의 주변에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공예라는 개념은 사실 매우 애매한 개념으로 부분적으로 분류해 들어가면 다양한 양상을 지니고 있다. 초기의 공예는 뒤쳐진 수공작업으로 미술과는 다른 장식예술의 범주이였으며 점차미술의 범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한 중에도 역사상 공예가 서구에서 미술이라는 (Fine Art) 분류 개념으로 발전되면서 본래 지니고 있던 인간의 활동적 형태로서의 개념보다는 생산된 물체로서의 분류, 더 나아가 미술개념으로 강조되어 나가면서 더욱 그것은 혼란된 결과를 가져온다. 중세의 성당 건축가들은 건축의 역할 뿐만 아니라 목조각, 건축디자인, 장식디자인, 가구등 오늘날 공예활동과 중복되는 많은 일들을 종합적으로 담당하였다(Mike Cooley, From Brunelleschi to Cad-Cam). 이러한 활동들은 원시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시작한 아래 자연스럽게 발전되어온 결과이다.

4. 작품제작 및 분석

위와 같은 생각을 실제의 건축에 응용하여 작품으로 연결시킨 경우가 다음의 예이다. 연구자는 현대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조형물이라는 건축과 연결된 예술장식 활동을 위와 같은 건축 공간에 대한 현대인간의 자연과의 관계로 해석하였으며 오랜동안 본인이 작품으로 추구하던 형태 감각과 연결지어 그 연구의 실례로 삼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모형제작은 이 연구가 시작되면서 동시에 연구자의 구상속에서 짹티워진 것인데 그 실제모형들은 크랜브룩 미술대학원의 실기실을 오가면서 그 곳 현장에서 구체화 되었다. 크랜브룩 미술대학원이 있는 디트로이트는 넓게 펼쳐져있는 공업도시로서의 성격과 도심외곽의 흑인거주지역, 부유한 중산층이 거주하는지역(크랜브룩 대학원이 있는 학교주변지역이 그 예이다.)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학교가 위치한 브룸힐드 힐스(Bloomfield Hills)지역은 넉넉한 자연공간과 잔디, 호수를 주변에 두고 준도시 고속도로를 통해 도심과 연결되는 지역이다. 또한 유럽식 전통을 지닌 크랜브룩 대학원의 건물은 아름다운 정원과 조그만 호수를 지닌 대학원 중심의 미술학교이다. 이 아름다운 정원은 그 일대의 역사적 관광코스가 될 만큼 유명하기도 한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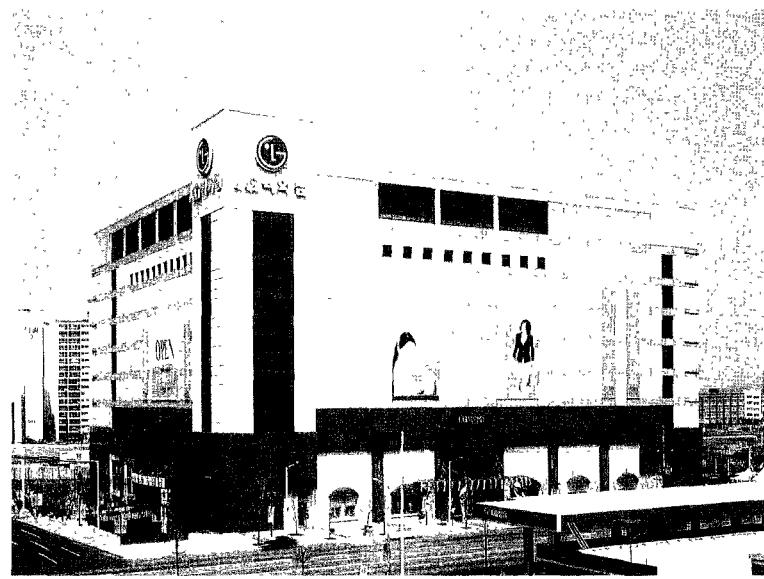
이 작품은 그러한 연구자의 변화된 환경 속에서 구상되었다. 공예가에게 있어 환경은 다른 조형 예술가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그것은 시각적 환경의 영향 뿐 아니라, 물질, 재료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작품제작에 있어서도 크랜브룩 미술대학원에서의 연구와 생각의 전개가 모형제작을 통하여 반영되었으며, 그 요소들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공예가들의 사고는 조형적 요소를 판단함에 있어 모든 감각의 집합인 것이다. 현대에 와서는 그 영향관계가 간접적으로 변해가지만, 중세, 혹은 현대 이전까지의 공예가들은 건축물의 부분들을 장식하거나 혹은 입체물을 제작함에 있어 직접적인 수공적 공정에 주로 의존하였다. 그러나 현대건축에서는 대부분의 공정이 기계에 의해 제작됨으로써 손의 흔적이 제거되고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감정이 떼마른 형태로 발전되게 되었다. 그러나 기계에 의해 제작되는 공정도 그 과정을 살펴보면 곳곳에 노동이 스며든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매마른 물질감 혹은 비자연적 요소들을 본래의 인간 친화적 요소를 지닌 형태 혹은 공간감을 되살리는 작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보고서의 앞부분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모형제작은 그와 같은 단지 자본의 판단과 합리적 공정관리에 의존하는 건축공간을 새로운 방향에서 볼 수 있는 과정으로 판단하였다. 공예가의 직접적 관리가 가능한 공간, 즉 수공적 모형제작과정은 순수사고나 합리적 질서를 추구하는 현대건축공간의 일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인 것이다. 이점에서 공예의 역할은 새롭게 조명될 필요가 있다. 다시말해서 인간이 체험하는 직접적 공간



〈그림〉 크랜브룩 대학원 건물

으로서의 공예공간은 여러번 강조되어 마땅하다. 박물관의 많은 공예작품들이 이것을 증명한다. 현대 건축공간에서 소외된 많은 조형물들 문, 창틀, 가구, 조명, 마루, 모든 손잡이들에서 외벽의 부착되는 외장재료들, 대문, 난간, 지붕·장식, 처마 등 모든것이 건축을 이루는 부분들인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단순화 과정을 거쳐 기능에만 치우친 과정이 현대성의 특징이다. 그러나 그러한 현대



〈그림〉 서울의 한 외곽지역에 위치한 백화점과 외부공간

성에 만족하지 못하는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는 것이다. 또한 그 시대 자체에의 거부감이 현재 진행되는 것이다.

한편 본인이 작업의 대상으로 하는 서울이라는 도시환경은 도저히 그와 같은 유럽전통의 학교주변이나 여유있는 미국식 중산층 백인거주 지역과는 전혀 다른 급변하는 대도시로서의 인구밀집지역으로서,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디트로이트의 중심상가지역, 70년대에 새로이 재개발된 르네상스 빌딩을 중심으로한 복합 고층건물은 아마도 서울의 고층건물이 지향하고 따라갈 대상일 것으로 추측되었다. 위와 같은 비교와 함께 건축공간을 중심으로 건축과 연결된 작품을 구상하게 되었다. 그것은 새로운 건축물과의 관계를 시도하는 실험인 것이다. 그곳을 오가면서 밀집된 서울의 백화점 건물과 그에 걸맞는 입체조형물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구체적 건축물과 유기적으로 숨 쉬는 형태에 접근하고자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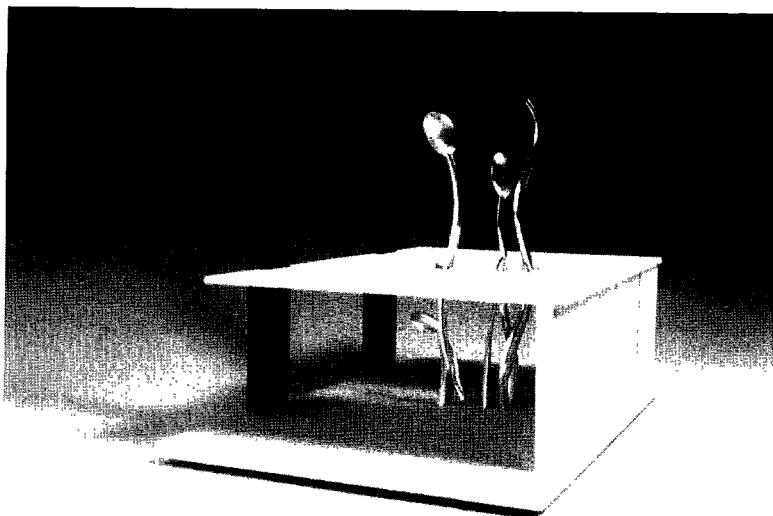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백화점 건물은 그것 자체로 어떤의미에서 복합적 조형물임에 틀림없다. 본인의 조형물제작에 있어서는 그곳을 드나드는 많은 군중의 시선과 환경적 느낌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위의 건축물은 외부공간이 도로와 연결되면서 내부의 상품진열과 외부의 도시생활공간이 만나는 곳으로 어느정도 여유로운 시선과 편안한 시각적 환경이 요구되는 곳이다. 주변의 산만한 분위기를 단절시키는 단순한 형태가 요구되었으며, 짓누르는 듯한 건축물의 용적률과 큰 괴체감을 흐뜨려줄 조형적 형태가 요구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형태들을 딱딱한 포장용 종이를 이용한 작은 모형을 통하여, 새로이 세워질 입체공간을 상상하면서 변형시켜 보았다. 최근 한국에서의 환경조형물의 제작은 건축설계가 끝나고 건축물이 준공될 즈음 아마도 준공검사와 연계되어 항상 뒤늦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제작품을 제작하는 조형예술가들은 고정된 건축공간의 외부 혹은 내부의 나머지 틈을 이용하여 상상하고, 세워질 건축물과의 관계속에 반응하게 된다. 이 작품의 공간적 속성에도 그와같은 과정이 함께 배어 있다. 연구자의 작품 속에서 오랜동안 추구해 온 자연의 서정성을 통한 절대적 추상미의 형태는 타원형 입체감의 형태로 그 근본을 이루었었다(〈그림〉 모형1, 2, 3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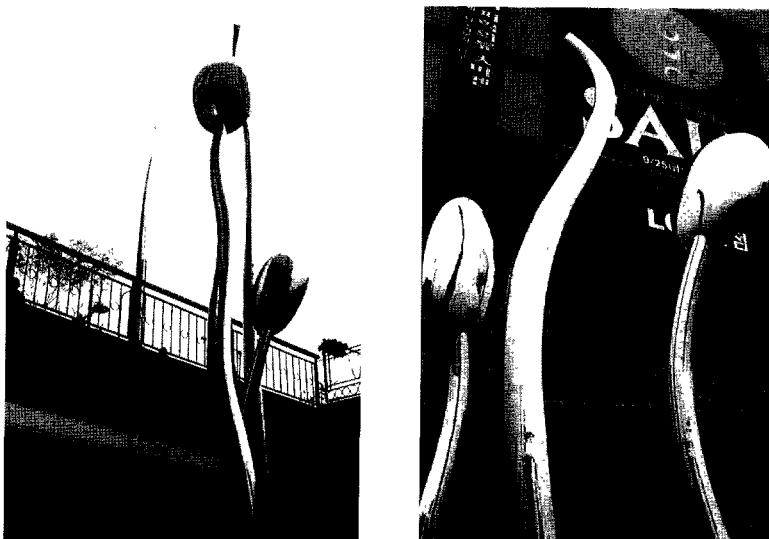
실제작품 참조). 이와같은 형태를 더욱 구체적으로 식물의 줄기와 같은 수직적 운동감을 지닌 기둥을 통하여 외부의 현대 건축적 요소에 동적 활력, 혹은 자연친화적 조형성을 대비시킴으로써 경직될 수 밖에 없는 현대의 건축공간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자 하였다.

작품 1

자연현상의 신비 가운데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생물의 변화는 끊임없는 관찰의 대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조형예술은 자연환경의 배경 속에서 경험적 미의 현상을 추출해 냄으로써, 압축된 형상미를 추구한다. 식물의 동적인 생명력을 입체적 곡선과 발아의 순간을 포착하여 완고해 보이는 건물의 기하적 입체건물에 대비하는 동적 형태미를 추구하였다. 수직의 입체조형물의 아래위로 통하는 공간을 통해, 수직적 상승력이 더욱 역동감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견되었다.



〈그림〉 모형 1 (생명의 줄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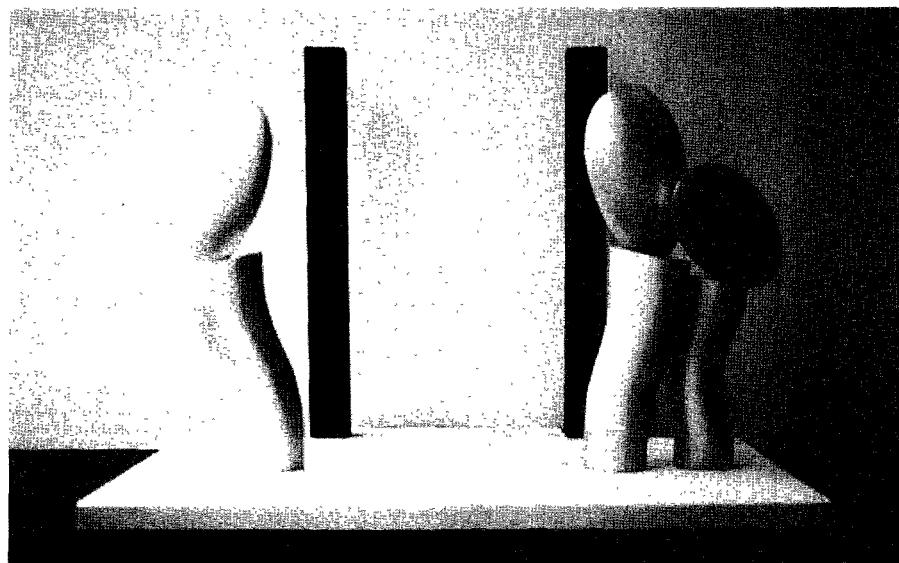
〈그림〉 실제작품 1 (측면)

스테인레스 스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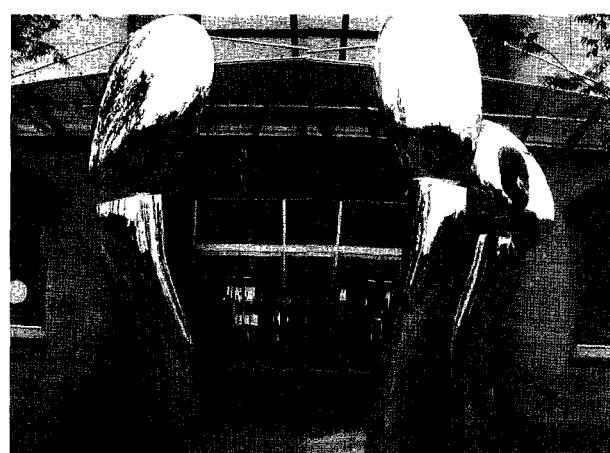
400 × 160 × 1,080cm

작품 2

현대미술의 아름다움은 모든 불필요한 장식을 제거함으로써 단순미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단순한 아름다움은 우리의 잠재적 시각속에서 보편적인 감성과 맞닿아야 하는데 자연에의 유기적 순환이 그것이다.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감성은 도시인들에 부드러운 감정을 통하여 여유로운 느낌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바닥에 맞 닿는 단면은 뭉툭 끊어진 느낌을 주면서도 윗부분의 애틋한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형태에 의하여 섬세하면서도 순수한 여운을 주고자 하였다.



〈그림〉 모형 2 (여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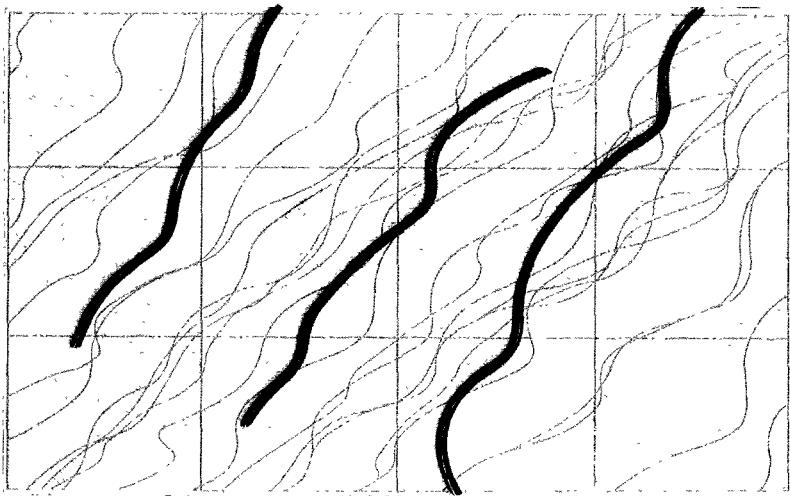
〈그림〉 실제작품 2
스테인레스 스틸
700 × 200 × 500cm



(측면)

작품 3

현대의 도시사회은 완전히 인공 도시화하여 모든 생산물은 간접적으로 공급받는 생활에 의존한다. 현대인에게 자연은 주말에 방문하는 그리운 원초의 공간이 되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의 공간의 상징로서 물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형상화 함으로써 도시인의 생활에 시각적 환기를 일으키고자 시도하였다. 재료의 기본적 소재는 함께 하였으나, 기존의 벽화중에서도 재료의 물성을 파고 드는 선묘를 중시하고, 역 공간으로서의 입체금속선을 사용함으로써 시각적 역전을 꾀 하였다. 또한 다리밑이라는 제한적이고 어둡기 쉬운 공간인 점을 고려하여 밝은 색상의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공간이 확장됨과 경쾌한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림〉 모형 3 (물결)



〈그림〉 실제작품 3

문경식, 청동 650×270×12cm

또한 위의 형태는 이와 비슷한 바른 곳에 위치한 건축물을 통해 단순한 형태에서 실험해본 결과 이기도 하다. 그러나 위부공간 뿐만 아니라 건축물과 공공 통행 조건이 다른점으로 인하여 시각적으로 그 느낌이 전혀 달랐다.

결 론

발달된 과학기술로 인하여 인간은 자연 속에서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실내공간을 창출하고 있다. 새로운 거주공간 속에서 인간은 생활의 질을 더욱 높이고 있다. 한편 인간의 욕구는 점점 더 자연 그 자체의 상태에 접근하고자 한다. 자연의 현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 받으면서도 자연 그 자체로 다가가고자 하는 욕구의 갈등이 있다. 인간의 손의 흔적이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공예미술은 그것 때문에 미술활동 전반에서 낙후되고 교육현장에서 소외되곤 하였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인 자연 물질과의 직접적 접촉이, 대량 생산의 산업사회에서 그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건축은 기술적 방법 이외에 새로운 디자이너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을 과거의 장식미술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인간의 욕구로 파악할 때 건축공예로서의 공예미술은 현대사회에 도시환경, 실내 주거환경에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인 장식적 기능뿐만 아니라, 건축과의 상호연관적인 순수공예 공간의 확장 발달로서, 모든 삶의 공간에 적극적으로 침투될 것이다. 그 이유는 오랫동안 공예가들이 실제로 행하여 왔던, 자연물질의 변용을 통해, 새로운 도시 공간에 적용,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공예가들은 단지 손의 기능 뿐만 아니라,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접목시킴으로서 그 체험을 인간의 모든 공간활동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다.

산업제품의 모델을 제작함에 있어서, 공예가의 참여는 대량생산을 통하여 절대적으로 수용자의 만족을 유도할 수 있다. 많은 공예작품들이 단일한 예술의 의미를 중시하기도 하지만 디자인으로서의 공예연구도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건축의 다양한 발전은 공예의 이와 같은 원형 및 모형제작으로서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예술 작품도 대부분의 경우 건축물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며, 건축물의 구체적 요소인 창, 지붕, 외벽, 내부 마감재료들의 대부분이 건축공간의 부분으로 참여할 때 이것 또한 공예가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현대건축은 순수건축으로서의 완결성을 자랑하면서도 예술장식품을 법제화 할만큼 건조하고 삭막한 도시환경을 창조해 내었다. 그것은 건축의 형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자본적 욕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형태심리만으로는 해석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시 인간의 손의 느낌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인간미를 요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위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공예작품이 예술작품으로 건축활동과 함께 인간의 삶의 공간으로 침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 나아가 적극적인 협동과정으로 발전하여 공예 본래의 의미를 복원하고 그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자연 친화 활동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실제 작품제작과 함께 미국의 공예아카데미에서 이와같은 전통이 어떻게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대건축 환경 속에서 공예활동을 전개하고 있는가에 관한 보고서이다.

참고문헌

윌리암 W. 카우델, 윌리암 M. 페너, 폴 케논 공저, 건축의 이해, 박만식 역, 기문당, 1988

야나기 무네요시, 공예문화, 민병산 역, 신구문고, 1976

Bruno Zevi, 공간으로서의 건축, 강혁 역, 신학사, 1985

니콜라스 펙스너, 근대건축과 디자인, 이대일 역, 미전사, 1991

Edward Lucie-Smith, 공예론, 조일상, 박수철 공역, 창미, 1983

ed. John Thackara, Design After Modernism, Beyond the object, Thames and Hudson Inc. NY, 1988

John Ruskin, Lectures on Art, Allworth Press NY, 1996

Jonathan M. Wooham, Twenty-Century Ornament, Rizzoli NY, 1990

David Pye, The Nature and Art of Workmanship, Cambridge at the University Press, 1968

Bruno Zevi, The Modern Language of Architectur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Seattle and London, 1994

William J. R. Curtis, Modern Architecture Since 1900, Phaidon, London, 1996